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19, 2022 Vol. 814

미주 복음방송 '나눔On캠페인' 15만 달러 기금 나눠

우크라이나 긴급지원 5만 달러, 난민 사역 5만 달러, 남가주 자선 단체 9곳에 각 5천 달러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나눔On캠페인을 통해 공개모금 된 15만 달러의 기금을 지역 사회 9개 봉사단체와 우크라이나 긴급지원, 난민 사역에 전달했다.

GBC 미주복음방송은 지난 12일 '퍼스트펄링 지원금 수여식 및 언론사간담회'를 개최하고 푸른 초장의 집(빅토리아 흥원장), 무지개 가족 선교회(대표 이지혜 선교사), Seesaw Communities Inc(대표 Sam Yoon), 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 방주교회(대표 김영규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대표 이종희 목사), LA One Church(대표 광찬 목사), 하모니드립센터(대표 황인주 목사),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에 각각 5천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



GBC 미주복음방송 '나눔On캠페인'에 선정된 9개 자선단체 지원금 수여식 ©기독일보

했다. 올해 나눔On캠페인에는 50여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 지난 4일까지 공개모금을 통해 모인 기금은 총 14

만 8천 301달러였으며, 남가주 지역 봉사단체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5만 달러, 난민지역 사역에 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선 목사는 "한번 지원하고 중단하는 단기적 후원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봉사 단체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돕겠다"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역 단체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코이노니아선교회 박종희 목사는 "그동안 긍휼 사역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끊임 없이 격려해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동욱 기자

UMC 최고법원, 지방연회의 일방적 교단 탈퇴 '불허'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최고법원이 감독이 이끄는 지역 연회가 일방적으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일 UMC 사법위원회는 총회가 절차를 승인하지 않는 한, 연회가 합법적으로 UMC를 떠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UMC에서 분립한 보수 신학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가 이달 초에 공식 출범하자 발표를 서둘렀다.

결정문 1444는 "연차 총회가 임시방편 정책을 채택하거나,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투표를 하

거나,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행동할 근거가 교회법에는 없다"고 결론 지었다.

또 "총회 법안이 없을 경우, 분립을 위해 연례 총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투표와 조치는 위헌이자 무효이며,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결정문 1444는 UMC 장정 중 572항에 따라 미국 외 국가에 있는 연회가 "자율적"이 되는 것은 허용되나, 이 조치는 해외 연회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

사법위원회는 "미국의 연례 총회에 대한 병렬 조항이나 절차는 없다. 이것이 의도되었던 아

니든, 사법부는 입법부의 헌법적 특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572항의 절차와 요건이 UMC와 분리되려는 연회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UMC 뉴스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 53개의 연회를 보유하고 있고,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 등지에서 80개의 해외 연회를 두고 있다.

최근 노스웨스트 텍사스, 사우스조지아 등 연회 2곳은 교단 탈퇴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노스웨스트 텍사스 연회는 지난해 GMC가 출범하면 새로 가입하기로 투표를 끝마쳤다.



2016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총대의원들이 본회의 전에 기도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 페이스북

이달 초 보수적 감리교 단체인 웨슬리안연합회(WCA)는 "(플로리다 연회 산하) 107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플로리다연회를 탈퇴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단 탈퇴를 희망하는 교회들은 플로리다 연회에 소속된 560여 개 교회 중 20%를 차지한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셔!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교회를 위한 신학” 미드웨스턴 기회 졸업식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71회 졸업식이 지난 6일, 캔자스시티 본교 캠퍼스에서 거행됐다.

미드웨스턴은 이번 봄학기 졸업식에서 역대 최다인 3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년이 넘는 코로나의 여파 중에도 미드웨스턴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1명, 목회학 박사 4명, 교육목회학 박사 4명, 교육학 박사 1명, 신학 석사 6명, 목회학 석사 12명, 기독교 교육학 석사 2명, 상담학 석사 1명, 사모학교 2명 등 총 28명이 졸업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졸업식에서 아시아부 학장 박성진 교수는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8년의 재직 기간 동안 한국부를 넘어 880여명에 이르는 아시아부로 지속 성장 발전 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학장은 또 한국인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출판사 성서학 시리즈에서 히브리어 관련 출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71회 졸업식

을 하는 등, 행정과 학문의 두 영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역량이 높게 평가 받았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높은 수준의 박사 논문도 많이 나왔다.

원경준 선교사는 중국 기독교 철학 전문가인 김광성 교수와

진미수 교수의 지도로 “기독교 중국화 시대에 직면한 중국 가정교회의 신도착교회 모델 방안 연구-1920-30년대 와치만 니의 지방교회를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성경사역학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원경준 선교사는 중국에서 25년 간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로 중국 실정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정보를 축적해왔다.

그는 중국 가정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소위 ‘기독교의 중국화’ 작업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 1920-30년대 시행된 반기독교 운동에 대항하여 자신학화(Self-theologizing)를 통해 중국 상황에 맞는 지방교회를 세운 와치만 니의 사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논문의 핵심이다.

그는 논문을 통해 와치만 니의 지방교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 교회사 가운데 자발적인 전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조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토착화된 형태로 정착된 최초의 의미있는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까지도 중국 남방 지역 가정교회의 주류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았던 다량의 1차 문헌 연구를 진행했고, 와치만 니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던 지방교회 원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와치만 니와 지방교회를 역사적 실재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민 목회, 한 영혼에게 집중하자”

미주 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5월 기도회 개최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5월 기도회에서 설교하는 김덕수 목사 (LA 지방회 회장) ©기독교일보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5월 기도회가 지난 9일,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주관으로 사우스베이선교교회 (담임 양우광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교역자회의 회장인 김성식 목사의 인도로 열린 이날 예배는 신동수 목사(LA 동지방회 부회장)가 기도하고 김덕수 목사(LA 지방회 회장)가 “그 한

사람”(막 5:1-2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 목회의 가치들이 대중을 바라보느냐 한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달라진다”며 “예수님의 가치들은 한 사람에게 있다. 사람처럼 효율성을 따지고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한 사람이 곧 천보다 귀하다는 가치

됨으로 한 영혼에게 집중하자”고 전했다.

이어 김성식 목사의 인도로 교단과 교회,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총무 박창현 목사의 광고 후에 미주성결교회 신임총무로 선출된 김시온 목사(웅기장이 교회)가 인사했다. 김 목사는 “연소한 저를 교단의 총무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대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총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모든 예배는 김기동 목사(세리투스 중만교회)의 축도로 예배는 마쳤다. 이어진 회의에서 김성식 목사가 남가주 교역자회 주관으로 열릴 가족수양회에 대한 소개 후에 지방회별로 광고가 이어졌다.

한편, 미주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이순희목사(백송교회 담임)를 주강사로 가족수양회를 열 계획이다.

이인규 기자

미주 연세조찬기도회 초대회장에 정요한 목사 취임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미주 연세조찬기도회 ©기독교일보

미국 남가주 LA에서 미주 연세조찬기도회가 시작됐다.

미주 연세조찬기도회는 지난 9일 오전 7시, LA 한인타운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서 연세대학교 개교 137주년 기념 미주 연세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정요한 목사를 추대했다.

초대회장 정요한 목사는 “앤드우드선교사를 통해 설립된 연세대학교의 숭고한 뜻을 함께 공유하고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미주한인커뮤니티와 함께 발전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연세아

카데미 회장 지용덕목사 사회로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이태섭 회장이 환영사를, 이효종 서울 연세조찬기도회 회장이 동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어 미주CBS방송 대표 한기형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김영대 목사, 최계성 장로, 조후연 목사의 공동기도가 있은 후, 박중대 목사(전, 남가주 교협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연세조찬기도회 임원진은 이사장 황선철, 부회장 최계희, 재무 신서영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모임 이후 정기적으로 조찬기도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제자입니까?”

창립 49주년 나성영락교회 2022 봄맞이 말씀집회

SPRING REVIVAL SERVICE

- 5/20 (금) 7:30pm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행 10:9-16)
- 5/21 (토) 6:00am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행 4:1-22)
- 5/21 (토) 6:00pm 믿음이 자라나기를... (히 5:12-14)
- 5/22 (주일) 1부-3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고전 1:1-2)
- (주일) 청년예배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눅 17:7-10)

*봄맞이 말씀집회 어린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YNC Young Nak Church of L.A. 담임목사 박은성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A., CA 90031 / Tel. 323-227-1400

강사 | 김병삼 목사
(분당 만나교회 담임)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 한인 정치참여 호소

“미국 건국 이념과 성경적 토대 다시 세울 것”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위원장 이우호 목사)은 지난 10일 남가주 LA소재 JJ그랜드호텔에서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한 제니 레이(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에릭 칭(미 연방 하원의원 후보), 미치 크레몬스(캘리포니아 주 상원 후보), 유수연 후보(캘리포니아 주하원 후보), 제시카 마티네즈(캘리포니아 주 하원 후보)는 “미국의 성경적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후보자들은 미국 사회의 문제로 가정의 파탄과 결혼관, 낙태문제, 노인문제, 빈곤문제, 종교탄압, 청소년 타락, 공교육 문

제, 각종 범죄 증가 등을 꼽고, 올바른 정치 리더십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연 후보(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는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일해오면서, 상식이 무너진 법률이 우리 아이들의 바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을 수 없이 보았다”며 “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어 정치로 뛰어든다”고 소신을 밝혔다.

에릭 칭 후보(월넷 시장)는 “안전하고 아름다웠던 미국이 성경적 가치를 거부하며 범죄가 가득한 사회, 종교적 양심과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됐다”며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 미국을 올바르게 세우나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이 주최한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 초청 기자회견

갈 수 있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우호牧사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며 우리 차세대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와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 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 한인들이 신앙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단으로 미국의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예비선거일은 오는 6월 7일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5월 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은 지난해 6월 25일 창립됐으며 오는 15일(주일) 오후 6시, 플러튼에 위치한 True Love Lutheran Church에서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들을 초청해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김동욱 기자

비전케어, 한인 및 라티노 주민들 무료 시력검사 진행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이사장 고정원)가 LA 한인타운 내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 라티노 주민들을 위한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진행했다.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아이캠프는 눈 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어도 경제적 형편이나 체류 신분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75명의 한인 및 라티노 주민들이 방문해 무료 시력검사 및 안검진을 받았다.

이날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한인 및 라티노 주민 6명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녹내장 질환

이 심각한 환자와 안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최대한 무료 진료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전케어 이사이자 안과전문 의인 조성진 의사, 리사 황 의사, 켈빈 임 의사, 엘리스 김 의사가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눈 검사를 진행했으며, 뉴밀레니엄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나와 혈압과 당뇨검사도 무료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재외동포재단, LA 총영사관, 오픈뱅크, 강드림재단, 패밀리오피스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김영완 LA 총영사도 당일 행사장을 방문해 진료하는 의사들과 환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욱 기자

원하트 미니스트리, 미서부 한인 최대 규모 찬양예배 컨퍼런스 개최

원하트 미니스트리 (이하 원하트)가 오는 6월 둘째 주에 전 어노인팅 워십리더 전은주 전도사와 “지금은 하나되어 예배할 때”라는 주제로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 서부 지역에서 예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예배 컨퍼런스는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는 자리로, 이번 원하트 컨퍼런스에는 보컬, 악기, 음향, 예배인도, 촬영 등 다양한 주제 선택 강의가 마련된다.

원하트와 함께하는 전은주 전도사는 ‘교회여 일어나라’, ‘난 노래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소원’ 등 다수의 대표곡으로 CCM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전 어노인팅 찬양인도자다.

원하트와 전은주 전도사는 6월 4일(토) 엘에이 지역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방문해 다양한 선택강의와 누

2022 ONEHEART WORSHIP CONFERENCE with 전은주 전도사

예배인도 전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 원하트 X 전은주 전도사

주제: 지금은 하나 되어 예배할 때

대표곡: “교회여 일어나라, 난 노래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 날 앞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소원” 외 다수

ONEHEART MINISTRY는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 아트, 영상 등 관련분야를 다루고 있어 예배와 찬양, 사역을 펼치고 있는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30에 주어나눔교회에서 화요찬양으로 모이고 있으며, 유튜브로 WICKEDSOUND를 통해 이 시대에 참 예배로의 도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등록비: LA-\$100 SF/SEA-\$50 (미세먼지 주의: LA, SF, SEA는 4월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샌프란시스코 \$100 (4월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시애틀 \$100 (4월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

모든 저녁 집회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등록비로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찬양 인도자 및 찬양팀 네트워크

문의: 213-347-5080 김혜지 간사

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저녁집회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엘에이 지역 컨퍼런스는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6월 8일 오클랜드 우 리교회에서, 시애틀 지역은 6월 11일 순복음 타코마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컨퍼런스 비용은 엘에이 지역 100달러,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50달러다. 저녁집회는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8명 이상의 단체 접수 또는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의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213-347-5080 김혜지 간사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후 되나하리
Righteous Outlaw
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세운교회), 주선영목사(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현목사(예수교회), 송정영목사(복음선교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필리이주대표), 신정민목사(종교개혁연구원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 별의 책은 예배 전례자료로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공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제조사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단영수증을 첨부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3

“선교적 교회로 가는 한 목회자의 선교전략”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며칠 전 엘에이에서 큰 교회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이다. 은퇴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30년간 목회한 교회가 굳건한 선교적 교회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현재 교회는 구역마다 각각 선교 후원자가 있어서 일 년 열두 달 교회는 선교지 사역과 소개를 하고 기도 제자들을 나누며 활기차게 교회와 선교지를 연결하고 있다. 대부분 교회들이 선교지 방문을 못 하며 간신히 몇 곳 선교지에 후원금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데 비해 이 교회는 일년에 교인들 수백 명씩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는 전이전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

더십을 맡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청년들과 선교단체의 프로그램을 만나게 하였고 교회의 청년들이 선교단체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회는 청년과 교육부들까지 매년 선교 열풍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이 담임목사의 선교 목회 전략이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을 신뢰하며 후원할 지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선교단체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지교회들과 청년 사역자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담임목사는 그런 선교단체의 사정을 잘 아셨기에 교회는 선교적 역량이 있는 열정적인 선교 리더십을 취하고 그 선교적 역량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선교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칫하면 서로 떨어져 갈 뻔한 선교단체와 교회 간의 차이를 담임목사의 깊은 이해심과 깊이 있는 지원으로 서로의 관계를 동역하는 아름다운 협력관계로 잘 세운 것이다. 담임목사님은 우리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장단기 선교사 파송식을 보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프로그램에 교회에서는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동원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양자가 선교를 위한 귀한 영적 전투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필자는 이렇게 되기까지 보통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담임 목사님께 처음에 선교적 교회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전략을 여쭙었다. 목사님은 감회 깊게 과거를 회상하며 그간의 사역을 전하였다. 처음 한 선교단체의 집회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활력 있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선교단체의 청년 리더십을 청빙하는 전략을 세웠다. 선교단체의 청년 리더십을 초청하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어시스턴트로 시작하게 하였다. 관심을 가지며 1년, 2년 기다리다 3년째 대학부 사역자로 세우면서 신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며 전도사로 훈련시켰다. 대학부가 부흥하면서 전도사의 사역을 청년부까지 확대하였고, 대학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교회 선교 프로그램의 리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⑩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의 역사(1)”

예수님께서 죄수가 되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의 기원은 다소 복잡합니다. 필자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며 십자가형의 기원을 앗수르로 봅니다. 앗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입니다. 앗수르 제국은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적군을 처형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반적 사형 제도로 운용되었고, 로마 시대에 공식적인 처형법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경외함으로 십자가형을 폐지하는 4세기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앗수르는 잔인함에 있어서 창의력과 기발함을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앗수르의 포화성’이라는 소설에서 피터 프레스카는 앗수르 군대의 잔학한 처벌법을 소개합니다. 그는 앗수르 군대는 적군의 신체(팔, 다리, 혀, 코, 귀) 절단이나 고환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을 공공연히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앗수르의 이런 잔인성은 심리전 일부였습니다. 적군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할 목적이었는데 너무 잔인한 방법을 취하자 아군 병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앗수르제국은 저항이 심한 적장(敵將)이나 적군의 주요 인물은 기둥에 박아 죽였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끝을 뾰족하게 깎은 다음 북부를 찢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이 사형법의 효과가 컸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정복한 장군의 세력을 과시하고 적군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의 원조이었습니다.

십자가형(Crucifixion)의 의미는 ‘나무, 벽, 바위 등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앗수르의 매달아 죽이는 처형법이 십자가형의 기원으

로 로마로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세계를 정복하던 알렉산더(Alexander the Great) 대왕이 십자가 사형법을 발견하고 그리스-로마 사회에 도입했고, 로마 시대에 국가 공식적인 사형법으로 정착했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들은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반란자나 노예계급에 속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한 유대인이 많습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항전했던 유대인 수천 명이 로마군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안드레 등은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참수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반항한 노예,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 등의 중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반항한 노예란 주인을 죽이거나 비슷한 악행을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3차 노예 전쟁에서 스파르타쿠스를 따랐던 노예들이 십자가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노예들을 처형했던 6천 개의 십자가를 로마 최고 고속도로인 아피아 가도(Via Apia) 변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과 멸시 그리고 모욕을 공개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시간은 6시간부터 4일이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을 발가벗긴 채 매달려 죽음의 고통을 온 세상에 공개하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다음 호에 이 잔인한 십자가형들이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된 과정과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렌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장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2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폴리테크닉) 조직신학



프리실라 아도요 교수, D.Miss. (폴리테크닉)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관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 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라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장학금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서류심사

원서접수

Table with 2 columns: 여름학기 접수기간 (2022년 5월2일 (월) - 5월 20일(금)), 합격자 발표 (2022년 6월 2일 (목))

여름학기 일정(5주)

2022년 7월 11일(월) - 8월 12일(금)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C&MA 한인총회 “부흥 향한 거룩한 열망과 과감한 시도”

차세대 부흥 위한 ‘어린이 공유사역’ 시작

C&MA 한인총회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부흥을 위한 거룩한 열망, 부흥을 위한 과감한 시도’라는 주제로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 소재 찰스톤 진리의교회(담임 임경묵 목사)에서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이브리드로 진행된 총회는 현장에 50여명, 온라인 화상을 통해 30여명 등 모두 80여 명이 참여했다. C&MA 한인총회 목회자들은 복음 중심적인 지역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들을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시킴으로 전세계 복음 전파에 헌신할 것을 결의했다.

감독 정재호 목사는 환영사에서 “우리의 때에 부흥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고, 땅 끝까지 전할



찰스톤진리의교회에서 개최된 C&MA 한인총회 제39차 정기총회

것을 확신한다”며 “부흥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 과감히 시도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C&MA 한인총회는 올해부터 ‘어린이 공유사역’을 시

작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유사역’은 EM과 유스 그룹 등 개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차세대 사역을 한인 총회를 통해 연합해서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인총회는 영상 제작팀, 플랫폼

운영팀, 콘텐츠 개발팀, 재능 기부자 그룹, 교육 및 홍보 위원회 등 공유 사역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이번 가을학기부터 각 교회들에게 어린이 사역을 돕기 위한 공유사역의 영상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공유사역에 이어 유스 공유사역으로 지경을 넓히고, 선교지 자녀들과 현지인들에게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재호 목사는 공유사역에 대해 “모든 것들을 독식하고 독식한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자신들의 재능을 기꺼이 기부하고 모든 자들이 함께 나누는 시대가 도래했듯이, 교회 역시 내 교회를 넘어 우리들의 교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이어 “모든 교회가 ‘사유에서 공유’로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며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고, 땅 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창대장로교회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2천달러 기탁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복음 전해

샌버나디노에 소재한 창대장로교회(담임 이춘준 목사 3630 N. E St San Bernardino.)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나서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창대장로교회 성도들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이달 초 2천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춘준 목사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노숙자들에게 전달할 슬리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이춘준 목사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대장로교회는 이번 우

크라이나 난민 돕기 이외에도 평소 교회 부설 사랑나눔선교회

(권철준 부목사)를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창대장로교회는 매주 토요일 아침 샌버나디노 파크 패리스 파크 위트맨 파크 등 3곳의 공원에서 7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벌써 24년째 지속해 온 사역이다.

또한 매년 매년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인 해피필리지 주관하는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에도 참여해 100여 벌의 점퍼와 음식,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용품 등을 나눠주고 있다.

이춘준 목사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노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됐다”며 “그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창대장로교회 지역 사회 봉사 참여 문의는 전화 951) 966-9191로 할 수 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행방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알바인 OC/LA 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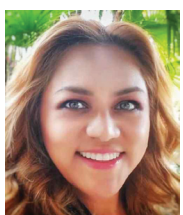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2021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케를리 (뉴스타 시카고 뉴스타) 에이전트!
케를리
DRE #196699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ell 714.345.4989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보 초청 국가를 위한 기도회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California Republican Candidates



Michelle Martinez
District 41
Republican
Chair



Sharon Washington
Salt & Light
Leader



Soo Yoo
District 67
Candidate
California
House



Rev. Charlyn
Park Dr.
KACRP
Honorary
Chairwoman



Jenny Rae
Candidate
Governor
California



Eric Ching
District 38
Candidate
US Congress



Rev. Jacob Lee
KACRP
Chairman



설교: Rev. Hun Y. Cho
Great Light
Methodist
Church

오는 6월7일은 공직자 예비선거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선 5월23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에서는 캘리포니아 한인공화당 후보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는 동포여러분을 초청합니다.

June 7th is the day for our National Primary Election. It is so important you must register to vote in advance by May 23, 2022. We cordially invite you to our 1st 'California National Prayer Meeting for the Republican Candidates' on May 15, 2022, at 6:00 PM at the Fullert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California.

Date: May 15(Sunday), 2022, 6:00 PM
Location: 'True Love Lutheran Church' in Fullerton
R.S.V.P. by May 10, Tel: (323)[820-8520] Dr. 박성녀목사

국가를 위한 기도회 위원: 강병태목사, 강만석목사, 조현영목사, 이우호목사, 제임스한목사, 박성녀목사, 하세화권사, 사라박사모, 제이김사모, 이은숙사모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California Korean American Republican National Prayer Committee
www.miamikoreannews.com

후원: 마이아미재외동포신문, 코랄리치한인교회, 캘리포니아성령애국집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코로나 중에도 13개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의 날 행사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500교회 비전 넘어, 528개 교회 개척 “절대 긍정 신앙으로 목회 몰두할 것”

이와 관련, 지난 11일 수도권 지역 1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제19회 교회개척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13개 교회를 개척해, 1985년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한 이래 모두

528개 교회 개척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국내 500 교회의 비전을 갖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528개 교회에 이르렀다”며 “가장 어려운 곳에서 시작한 개척 교회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

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또 동경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시절 열두광주리 새벽기도를 통해 성전을 마련한 간증을 전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켰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을 의지해 기도해야 한다”며 “지금의 풍요로움 속에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26기 교회개척학교 수료식과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일수 목사 등 4명의 목회자가 수료증을 받았고, 교회개척 후원선교회 회장 최용관 장로, 장로전도단 단장 박제식 장로, 교정복지문서선교회 회장 강인수 장로, 농어촌선교회 회장 손경하 장로 등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개척위원회는 개척된 교회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위해 733억 1,616만 5,233원의 개척지원금을 출연했고, 136개 교회에는 지원한 개척지원금을 모두 양여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개척 교회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예수님 목회 배우기’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도 열었다. ‘승리하는 목회의 비결’을 주제로 강연한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긍정의 고백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조용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메시지로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셨듯, 부정적인 데 물들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몰입하자”고 당부했다. 또 “개인과 사회 구원의 균형을 이뤄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며 동성애 사이비 이단 등 세상의 악한 풍조에 따르지 않는 교회로 우뚝 서자”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은퇴 후 삶... 후임 비판하고 간섭해 갈등 유발해선 안 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가 13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총무성결교회(담임 성장용 목사)에서 ‘은퇴 목회자의 건강과 복지’라는 주제로 5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기도회에선 성장용 목사의 사회로 최성규 목사(한복협 지도위원, 인천순복음교회 장로)가 설교했으며, 이어진 발표회를 통해 김혜경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은퇴 목회자의 건강과 복지’, 김경원 목사(한복협 자문위원, 서현교회 장로)가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먼저 ‘성경 말씀 실천이 힐링이다(신명기 10: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최성규 목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말씀 실천이 결여된 것이 큰 약점이다.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성경대로 사는 삶이 힐링”이라며 “한동안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사회 곳곳에서 힐링이 들

불처럼 번져나갔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아프다는 것이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쳤고, 위로와 치유를 갈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며, 외면하지 않고 대면해야 한다”며 “상처를 이겨내면 우리 삶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며, 이에 굴복하면 고통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실천신앙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건강한 신앙은 상처가 아름다운 주름이 되며, 상처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낸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감사 축복”이라고 했다. 이후 가진 발표회에서 김경원 목사는 “은퇴는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은 보편화 되었지만, 처음 목사 시무 정년제가 될 때는 엄청난 반발과 충격이 있었다. 내 소견에는 70쯤 되면 지성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70세가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사역의 끝냄이 시원한지 아니면 섭섭한지라



김경원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는 질문은 은퇴 전후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나는 ‘시원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목회는 영광스런 사역이지만 무거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섭섭하다’는 반응은 대체로 타의에 의해서, 의욕이나 건강이나 다 좋아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사정으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흔히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주변의 가깝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은퇴 전에 교회와 갈등이 생기면 배신 당했다는 아픔을 토로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섭섭함을 방지하려면 미리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먼저 섬겨온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철

저히 하나님의 교회요 일정기간 나에게 맡겨서 사역하게 하셨고 그 기간이 다 되어 물러나며 그 배턴을 다음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라고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은퇴 목사님들은 다 같이 섬겼던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어렵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원로가 자칫 잘못 생각해 후임을 비판하고 간섭하여 갈등 유발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은퇴 후 나는 2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첫째는 은퇴 전에 잘 알고 지내던 군복 출신 목사님의 제안으로 대대교회를 섬기는 선교를 하게 되었다. 둘째는 목회할 때는 관심을 못가졌던 미자립 개척교회들을 매일 방문해 함께 예배하고 설교도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영성관리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연)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경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립시

뱅크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
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탈레반, 아프간 여성들에게 전신 가리는 의상 의무화

위반 시 남성 가족이나 친척 처벌당할 수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도록 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자다(Haibatullah Akhunzada)는 지난 7일 카불의 한 행사에서 “여성들은 공공 장소에서 전통적인 차도르(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의상)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령을 내렸다.

이 같은 복장 규정은 탈레반이 지난 몇 달 전 여성에게 부과한 제한 사항 중 최신의 것으로, 지난해 12월 아프간 외교부는 여성들이 남성 친척의 동행 없이 45마일 이상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복장과 관련해 재도입된 의무 사항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규칙과 유사하다.

이 기간 탈레반 정권은 많은



부르카를 착용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모습. ©pixnio

여성들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했다. 오늘날 일부 여성들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으나, 카불과 같은 도시 지역에 사는 대부분은 얼굴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법령에는 아프간 여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아버지나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이 처벌받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여성 친척이 집 밖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심지어 투옥될 수도 있다.

파우지아 쿠피 전 아프간 국회의원은 자신의 트윗에서 “3,5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기아의 위기에 있지만, 탈레반의 유일한 우선순위는 여성의 의복인 것 같다”며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항상 이슬람 원칙에 따라 복장을 갖춰 입었다. 부르카는 전통 의상이며, 항상 개인의 선택이었으며, 이슬람에서 절대 강요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 규칙을 위반하는 여성의 남성 보호자는 3월 동안 투옥될 수 있으며, 여성이 집 밖에서 할 일이 없으면 집을 떠나선 안 된다.

전쟁평화연구소(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 싱크 탱크 팀인 아시아 회장은 “탈레반은 아프간을 여성을 위한 자연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미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의 보도와 같이, 탈레반 집권 기구는 서방 국가의 지원과 인정의 부족으로 악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 크게 분열돼 있다.

지난 3월 탈레반 지도자들은 “아프간 소녀들이 6학년을 마친 후 학업을 지속해선 안 된다”며 “나이 든 소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이슬람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탈레반 관료들이 학년도가 시작되기 몇 주 전 언론에 “모든 소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상충된다.

탈레반은 또 시위하는 여성들을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아쿤자다는 가정을 거의 떠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성을 포함한 소녀들에게 더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탈레반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통치 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은 무시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이란, 가정교회 설립한 기독교인에게 징역 10년형 선고

이란 혁명재판소가 이란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남성에게 가정교회를 설립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테헤란 혁명재판소 26지부 아프사리 판사가 이란 출신 아메리안 아누샤반 아베디안(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 HRANA)을 인용해 전했다.

아프사리 판사는 아베디안이 이슬람의 신성한 종교에 반대하고 이를 교란하는 교육 및 선전 활동, 허위 주장 유포 및 접촉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다고 판결했다.

아베디안의 가정교회에 속한 2명의 교인 압바스 수리(45)와 마리암 무함마디(46)에게는 약 2,000달러의 벌금, 2년간 테헤란

에서의 추방, 10년간 사회적·정치적 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이들은 국가 정보기관에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이들 3명은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의도로 복음주의적인 ‘시오니스트’ 가정교회를 조직·운영하고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처음 체포됐다. 당시 약 30명 정보기관 직원들이 테헤란 북동부의 나르마크에 소재한 아베디안의 집에서 이뤄진 사적인 모임을 급습해 모든 성경과 통신 장치를 비번과 함께 압수해 갔다.

이들은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서 수 차례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심리적인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게 됐다.

‘아티클 18’(Article 18)에 의하



이란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오픈도어

면, 이란 당국은 지난 10년간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를 폐쇄했으며, 기독교인의 변호를 맡은 자는 인격적·신앙적인 모독에 직면했다. 결국 교회는 소수민족의 언어로만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이란은 올해 9위를 차지했

다고 밝혔다. 오픈도어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특히 정부와 사회, 가족들의 박해를 받을 위험이 가장 크다”며 “이란 당국은 교회의 성장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로 구성된 가정교회는 종종 이렇게 습격을 당하고, 그들의 지도자와 구성원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돼 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2022 - 2023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5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2년 5월 1일 ~ 6월 1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2년 8월 1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2년 8월 21일 예정

선발 인원 00 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2@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강준민 칼럼

충성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제 영혼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개역한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영혼에 새기면서 충성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일은 잊혀진 단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충성(忠誠)”이란 한문은 “충성” 충(忠)에 “정성” 성(誠)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충(忠)이란 단어는 “마음” 심(心)과 “가운데” 중(中)의 합성어입니다. 성(誠)이란 단어는 “말씀” 언(言)과 “이룰” 성(成)의 합성어입니다. “충성이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충성(忠誠)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충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일꾼을 신뢰

하십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점점 더 소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성된 일꾼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의 소중함을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위해 헌신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맡겨진 일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중에 애굽에 팔려 갔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중에 골리앗 장군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대한 일을 맡기지 않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일, 하찮게 보이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진보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셋째, 머무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현재 머무는 곳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의 지혜는 그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물 때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머물 때 간수장에게 충성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머무는 곳에서 꽃피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머무는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무는 곳에서 충성할 때 그다음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 지혜롭게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충성이란 이미지 속에는 우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결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미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충성이란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남편과 아내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신실한 리더와 목회자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우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

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마 24:45-46).

다섯째,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나 한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충성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충성에는 칭찬이 따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재 '꿇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폭풍이는 박물관이나 연구실처럼 규모가 큰 건물을 날려 버리는 데 일가견이 있었다. 반짝

이가 손지갑을 훔쳐 내는 천재였다면, 폭풍이는 대규모 건물을 날려 버리는 천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짝이와 함께 폭풍이도 항상 대동하고 다녔다. 물론 당시 우리는 복음을 전과 한담시고 거리를 쏘다니면서 결사 반공을 위한 계몽 운동을 한 것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바울에게 식주인 가이오가 있었다면 내게는 반짝이가 있었고, 바울에게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었다면 내게는 폭풍이 있었다.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반짝이와 폭풍이라는 작은 도적과 큰 도적을

옆에 끼고 남의 물건을 반짝하고 초토화하고 다녔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재산을 되찾는다’가 당시에 필요한 일이었던 아니든, 도적질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악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악인을 미워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사악하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나는 당시 반짝이와 폭풍이를 대동하고 다니며 도적질

하고 싸움질 하는 것을 최선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성경과 무관한 나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쭙보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내 독단의 생각으로 행동했다.

하나님은 당시 하는 일마다 사악한 나를 왜 가만두셨을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잘못을 징벌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 자녀가 잘못을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디 배짱대로 해봐라” 하며 그냥 내버려두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대재앙이 일어나는 때다. 내가 도적질과 싸움질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셨다. 그랬더니 악인의 길로 더 깊숙이 빠져들었고, 바른 말을 하는 동료의 말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교만 덩어리가 되었다.

한편 반짝이와 폭풍이만큼이나 당시 나의 도적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멍텅이’란 사람이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구원받은 믿음인지 확인하라

안식일을 시작하며 나와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 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이 중요 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생활습 관 등 여러가지 주의를 기울 입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 으며 확인하고 작은 이상이라 도 생기면 치료를 받습니다. 또 재물도 중요해서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 을 따기도 하고 힘든 직장도 마다않고 열심히 출퇴근을 하 며 일을 합니다. 소독한 재물 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취득하려고 애쓰 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수 고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들보다도 몇 백배, 몇 천배 이 상,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 의도 없이 죽게 되고 그 후에 는 심판이 있는데, 영생 천국 과 영생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 의 개념이 비록 이 땅에서 우 리들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에 실감이 안 날 수는 있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이 이토록 중 요한 일이기엔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셨습니다. "하나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 면서까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마1:21) 그리

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활하 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 자가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 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 에 병이 낫기도 하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 잘 살 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 생활을 못하고, 기도를 못 한다면 복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 다.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이란 죄

사함의 은혜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 면서 '과연 저 사람 안에는 예 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안에는 천국이 확실히 있는 사 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도 예 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에 오직 믿음으 로 결정 되는 것으로, 죽고 나 면 끝입니다. 절대로 바뀌어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 이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 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영적 인 분별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가 에 대해서는 잘 모 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고 말씀 하실 때와 "멈추라" 고 말씀하실 때를 아는 능력입니다. 왜냐하 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처한 어 떤 상황 때문에, 그동안 달려오 던 길에서 벗어나 우회 도로 를 타고 빠져 나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의미는 자신에게 주 어진 상황을 판단하되, 자의적 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뜻에 비취 판단하는 능 력,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 또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하는 것 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을 판단할 때,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 의 경험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 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에 의존 하는 상황 판단은, 자주,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다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 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람은, 그분의 뜻에 비취 상황을

판단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의 말씀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 니다.

그 다음으로는, 믿는 사람 안 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 니다.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자 하는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 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상 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 시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기 원 하십니까?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

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 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 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 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온 전한 진리를 여는 열쇠는, 불완 전한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 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귀한 하루 가 되길 기도합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및 보험료/사기,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월지급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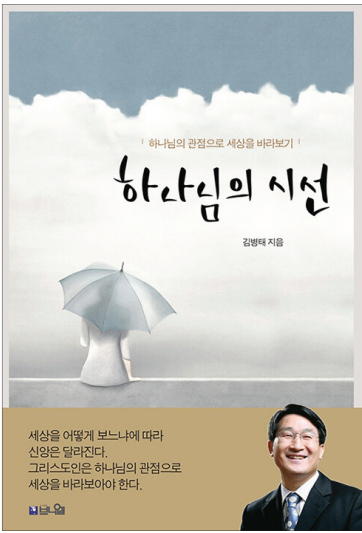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김병태 목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게리 토마스 저 | 윤종석 역
도서출판CUP | 312쪽

나의 반쪽
어떻게 선택할까?
아름다운
만남과 데이트를
꿈꾸는 이들의
필독서

헛된
연애론은 버려라.
운명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듯
'운명적인 반쪽'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브니엘출판사가 김병태 목사(성전교회)의 신간 <하나님의 시선>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잘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선명하게 해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허허 너털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속앓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사람의 같은 행동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분노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으며,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화려한 영성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시선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 사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만 잘 디자인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라보는 시선을 잘 관리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밝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가? 70억의 사람이 있지만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다소 못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인생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아를 갖고 싶다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 자신의 단점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하면 된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빚은 멋진 보물이고, 캐내야 할 잠재력이 무한한 보물창고이다”라고 했다.

저자는 이어 “사탄은 우리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유도해서 결국 어느 것 하나 충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탄은 우리를 '대충' '적당히' '나중에' '이번만'이라는 네 다리를 가진 의자로 파멸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아닌

가? 성경을 사랑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생각이 나눠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마음이 분주하게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미시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덜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지 않은가? 육신도 중요하지만,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정신세계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

다. 하지만 육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잘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잠기어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하지 않으면 사탄의 꾀에 빠져들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선명하게 해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그래서 과장되게 포장하고 위선도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악한 일도 꾸민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 처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김병태牧사는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과 상담학, 선교학을,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전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고 있으며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5월, 작가들의 말말말 ①]



◆ 옥성호 - 감각류 크리스천: 화이트 편

감각류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볼 때, 코로나가 초래할 결과는 다음 두 가지이다. '형식'이라는 감각을 철갑으로 만들어 더 두껍게 두르

거나, 아니면 부서진 갑각 사이로 속살이 드러나거나. 코로나는 한 마디로 기독교인의 감각을 부순다. 지금까지 적당히 덮고 있던 갑각만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이 책의 목적은 연약한 속살을 근육으로 바꾸는 것이다. 선택적 믿음이라 비난받는다 해도, 그것만은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걸 기독교인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되어야 한다. 내세에 관한 대부분 내용은 복음서, 특히 예수의 말에 등장하는데, 예수는 천국보다 지옥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천국은 믿으면서 지옥

은 믿지 않는다고? 예수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허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천국을 믿는 기독교인도 정작 하루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지, 그러니까 천국을 갈망하는 기독교인은 사실 거의 없다.

◆ 송준기 - 나 홀로 예배

사람은 주로 어떤 자원이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만났을 때 혼자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 일 반적으로, 홀로 남는다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 자리에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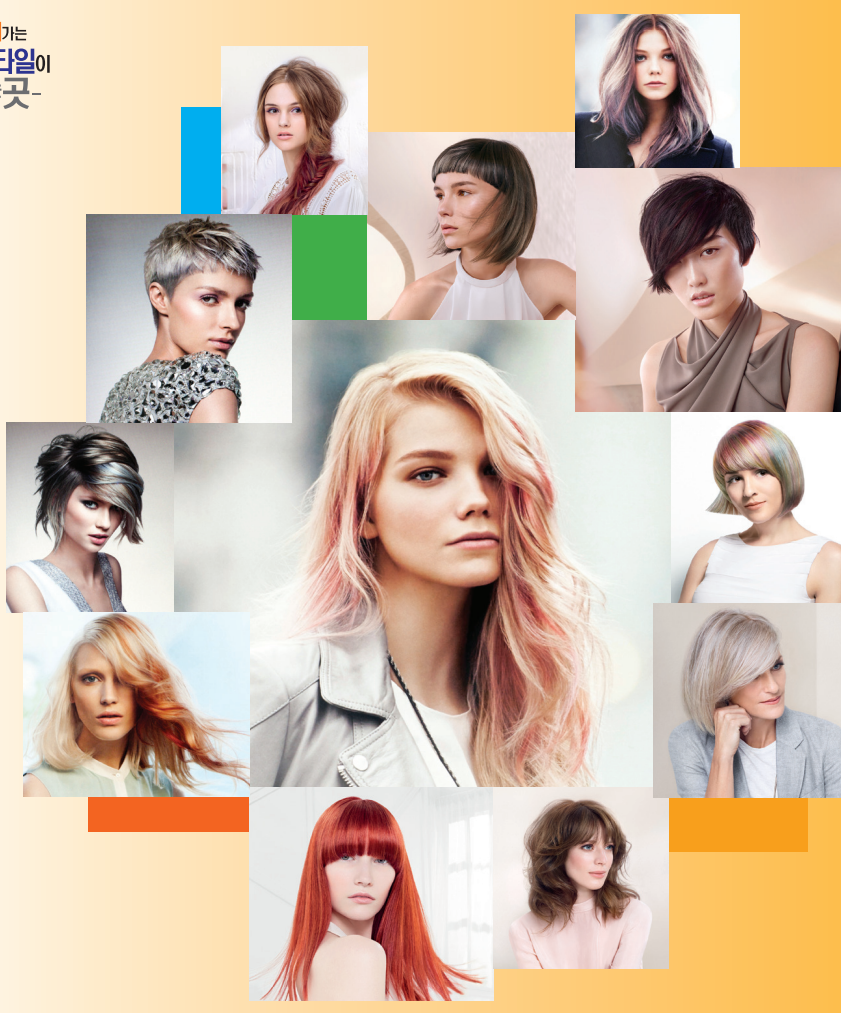
은 연약함을 느낀다. 무기력감, 외로움, 좌절감, 우울함, 분노 같은 온갖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하지만 홀로 됨에 좋은 점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홀로 됨의 유익이다. 홀로 남아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은 사람을 바꾼다. 영적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훈련자시니 그분과 긴밀히 만나는 사람은 성장한다. 하나님과 단 둘의 시간을 보낸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

다. 세파(世波)를 거스르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 나타내는 '나 홀로 예배'에 길이 있다. 소란한 시대일수록 조용히 골방에 머무르는 사람이 승리한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초월한다.

송경호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上)

마블의 멀티 유니버스, 기독교 신앙으로 바라본다면

멀티버스 설정, 진부한 캐릭터에 참신성 부여
연관 작품 중요해져, 슈퍼히어로물 판매 증가
빌런들과 싸울 뿐 아니라 다른 자기와도 투쟁
자유이지 올바른 활용 촉구하는 점에선 유익

◆멀티버스와 코믹스: 슈퍼히어로 코믹스 서사에 참신성을 더한 다세계 해석

마블의 새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그 제목이 명시하고 있듯이 멀티버스, 즉 다중 우주를 핵심 설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중우주의 존재에 대한 가정은 1956년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 박사학위 신청자였던 휴 에버렛 3세의 학위논문 '양자역학의 상대 상태 공식화(Relative State Formulation of Quantum Mechanics)'에서 처음 제시됐다.

에버렛이 다세계 해석(many-worlds interpretation)을 주장했던 것은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이 제시한 코펜하겐 해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아원자 세계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질 때 그 영역을 지배하던 파동함수는 붕괴된다(wave function collapse). 파동의 형태로 양자 중첩 상태에 있던 전자는 하나의 특정 지점에 위치하는 입자 상태로 전환된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이렇게 관측에 의해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사태의 보다 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현상적으로 그렇게 체험될 뿐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

에버렛은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함수에 담긴 여러 가능성들이 동시에 모두 현실화되는 세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이론적으로' 파동-입자 이중성의 모순을 해결해보려 하였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에버렛의 이론은 당대 양자역학의 대표자들, 특히 닐스 보어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그렇게 다세계 해석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는 듯했으나, 1970년대 '양자 얽힘' 개념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양자 얽힘 개념과 깊게 연관된 다세계 해석 역시 재평가되

기 시작했다. 원래 다세계 해석은 미시 세계에서의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를 거시세계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 앞장섰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슈퍼히어로 코믹스였다.

다세계 해석은 기존 슈퍼히어로들의 설정을 재활용하면서 부분적 참신성을 더하는 데 안성맞춤인 이론이었다. 특히 슈퍼히어로 시리즈 각 회차별로 스토리 작가가 수시로 변경되는 업계 특성에 잘 들어맞았다.

1930년대 등장했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은 1950년대 들어 이미 창안된 지 20년 지난 고전 캐릭터가 된지 오래였다. 그들의 정체성과 능력, 성격은 이미 팬들의 마음 속에 하나의 확고한 틀로 굳어졌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코믹스는 골수팬들만 좋아하고 새로운 고객층을 겨냥하지 못하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렇게 상업적 이익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60년대에 가드너 폭스를 필두로 코믹스 스토리 작가들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을 가져와, 슈퍼히어로들의 거시세계에 직접 적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작가들이 노렸던 효과는 기존 슈퍼히어로들의 굳어져버린 정체성을 허무는 것이었다.

◆멀티버스와 정체성: 정체성 혼란을 유도하는 다세계 해석

각각의 슈퍼히어로로는 삶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세계 해석의 유니터리 진행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여러 개의 세계가 분화되어 존재한다.

이로써 각 코믹스 등장인물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 성격, 능력 등을 보여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세계들에 존재하는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을 주된 설정으로 삼은 마블 스튜디오의 새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동일한 슈퍼히어로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거나 격투를 벌이기까지 한다.

지금과 와서는 이런 방식도 고전적인 서사 기법이 되어버렸지만 1960년대 당시에는 꽤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으며, 슈퍼히어로 장르의 인기를 되살리는 데 일조했다.

1950년대 인기가 크게 시들었던 슈퍼히어로 콘텐츠는 1960년대 들어 '실버 에이지'를 맞이하며 인기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멀티버스라는 설정이 '실버 에이지'를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슈퍼히어로 코믹스 서사에 참신함을 더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멀티버스 설정으로 각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세계들을 그려져야 할 여력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서로 연동된 슈퍼히어로 코믹스의 판매고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어느 한 쪽의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슈퍼히어로 시리즈의 서사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팬들이 연관된 코믹북을 같이 사서 읽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가 여러 다른 세계에서 서로 다른 선택에 따라 살아간다는 설정은 각 슈퍼히어로의 정체성 붕괴로 이어졌다.

각 캐릭터가 지녔던 단편적인

고 만화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약화되고, 입체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멀티버스에 노출된 캐릭터들은 이제 빌런들과 싸울 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자기와도 갈등하고 싸워야 했다.

이렇게 인간의 일원적 정체성을 허물고 중층적 다원성을 내세우는 방식은 당시 문화예술계를 점진적으로 지배해 나가고 있었던 포스트모던 사조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앤디 워홀의 1962년작 <마릴린 먼로 두 폭>(Marilyn Dip-tych)은 한 인격의 중층적 다원성을 표현한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미술작품이다. 동일한 실크스크린을 여러 다른 색으로 중첩해 붙여서 동일한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색채의 성격이 들어있는지를 표현했다.

이것은 한 사람 안에 무수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포스트모던 문화사조의 주제의식은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마블 코믹스에 이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그동안 쌓아올린 여러 작품들의 서사구조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멀티버스 설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출발점이었다. 작년 12월 개봉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과 이번에 개봉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서

사에서는 멀티버스 설정의 지배력이 더 높아졌다.

각 멀티버스의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스칼렛 위치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가 처한 서로 다른 환경에 의해 종래에는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이고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로써 각각의 캐릭터는 커다란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고 자신 안에 내재된 다양성을 직시하게 된다.

이런 정체성 혼란은 한 사람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수 있다. 즉 자유의지의 올바른 활용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 분열과 혼란은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결코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리저리 분산된 자아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로 통일하고 집중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정체성 혼란을 완벽하게 종식시키고, 도저히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정체성,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데 전념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 배타체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당뇨 합병증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핵산 배타체로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핵산 배타체로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항상 배타체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산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중추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칼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Tax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Tongdok Bible APP

35년 동안, 성경통독 대중화·학문화·세계화

드디어 미국 교회 성경통독 시작하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KJV (King James Version)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무료 다운로드
·아이폰 App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안드로이드 Play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Dr. Kenneth Ulmer
LA, Faithful Central Bible Church 담임목사



Dr. Craig Keener
Asbury Theological Seminary 교수



Dr. Tommy Barnett
Phoenix, Dream City Church 담임목사



Dr. James O. Davis
Global Church Network 설립자



Dr. Leonard Sweet
Drew University 교수



Pastor Leon Fontaine
Canada, Springs Church 담임목사



Dr. Glenn Burris
LA, Foursquare Church 담임목사



세계적인 성경학자 통박사 조병호의 렉처리 코스 미주 성경통독 전문강사 과정



일시: 2022년 6월 27일(월) 2:00pm~7월 1일(금) 12:00pm

장소: 잭슨빌 시온침례교회 (허병욱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네트워크 총무단장)

* 2950 Belfort Road, Jacksonville, FL 32216 / TEL: 386-235-7485 / tamuning@hotmail.com



강사: 조병호 박사

성경통독원 원장
성경연구원 객원교수
미국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글로벌채리티비즈니스쿨 Board of Governors
하이아일랜드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교역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석사)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선교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대상: 목사, 사모, 선교사, 강도사/전임전도사 (15명 정원)

회비: 800달러 (숙식 및 교재 제공) / 자격증 수여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 PPT자료,
통성경학교,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 PPT자료,
성경통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기타 소책자

주관: 성경통독원, 미주 통독바이블네트워크

문의 및 신청: tongdok@hanmail.net

2004년 세계적인 독일 신학자 RGG (Relig in Geschichte und Gegenwart)에
이티를 '세계 기독교학생운동 (Studentische Missionsbewegung)'을 통해
2009년 영국 왕립역사학회 (Royal Historical Society)에 스피커로 초청되어 발표
2009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통독'을 최초로 말했다.
2007년 미래 목회자 인양 초청 1세대 동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2008년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성경을 통한 재경향 (ReOrientation)' 공동대표
2010년 '통독' 매니페스토 컨퍼런스 대회장
2014년 '통독성경 포뮬라 (Formula for TongBible)'를 발표했다.
2016년 통독바이블리자 통독성경학교 인터넷 20강의 강사 (www.tongbible.org)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뮌헨베르크 2017 CONGRESS 스피커
2021년 글로벌채리티비즈니스쿨 Board of Governors
2022년 통독바이블 랩 미국 총장
2022년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설립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 2011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 2005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일반인영부문 최우수상 수상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 2020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학부문 우수상 수상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 2022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목회자료부문 우수상 수상
저서 《통솔 주석(전 12권, 통하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통솔성경 길라잡이》(개정증보판), 《통독성경학교》, 《통독성경학교 워크북》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영위 에베리아 70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통하는 레위기》, 《통하는 영적 예배》, 《선지자와 5대제국》
《消失의帝國》(中國 團結出版社/성경과 5대제국 중국판), 《성경과 고대전쟁》
《성경과 고대정치》, 《산구약 중구약》, 《성경통독과 통독신학》 등 50여종
편찬 《근거자 일반일독 통독독성경》, 《역사순 통독성경》

